



# 한·중·일 3국 수송포장가이드라인 제정을 마무리 하면서

## Packaging Guide-lines in Transport Packaging

오랫동안 한·중·일 3국이 공동 추진해 온 수송포장가이드라인 제정 사업이 마무리되어 가면서 성공적인 완성에 대한 보람과 앞으로의 효과적인 활용 방안에 대한 고심이 함께 밀려오고 있습니다만 이 가이드라인에 대한 업계의 기대를 생각하면 보람이 보다 큽니다.

우리 수송포장업계는 그 동안 포장비 절감 및 화물 손실 최소화를 위해 노력해 왔지만 이것은 수송포장업계만으로 해결할 수 없다고 인식하고 물류업계와 공동으로 풀어나가야 할 과제라고 판단하여 일본과 중국의 관련 단체에 제안하여 2010년에 이 가이드라인의 제정을 계획하게 되었습니다.

중국, 일본의 관련 단체인 중국포장연합회와 전일본공포공업조합연합회의 전문가들도 당 협회의 제안에 처음에는 회의적인 반응이었으나 제정의 필요성과 그 동안의 표준 공통화 사업의 성공적인 실적을 고려하면 충분히 가능하다는 설득에 동의하여 제정 사업을 개시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3국의 관련 단체들이 이 사업에 대한 예산 확보가 쉽지 않아서 순조롭게 진행되지 못하다가 다행히 2012년에 한국표준협회가 “한중일 공통 표준화 협력 과제” 수행기관으로 선정되어 결실을 맺어 가게 되었습니다.

수송포장의 목적은 생산자로부터 수요자까지 제품의 품질을 훼손하지 않고 경제적인 비용으로 안전하게 전달하는 것입니다. 이를 위하여 포장업계는 용기의 표준을 제정하고 교육을 통하여 기술자를 양성하여 안전하고 경제적인 포장을 달성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수송포장의 최종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철도, 선박, 자동차, 항공 등의 수송업자 및 하역, 보관 업자들이 일체가 되어 안전 수송에 협력하지 않으면 안됩니다.



김 형 빈

한국공업포장협회  
부설 수송포장기술연구소 소장

지금까지 포장업계 및 물류업계(운송, 하역, 보관 포함)는 긴밀한 정보 공유가 충분하지 못하였고 표준 제정 및 포장 시에 물류 전반에 걸친 기능을 충분히 고려하였다고 생각되지 않습니다.

국제해상보험연합 (IUIMI)의 전문적인 분석에 의하면 포장화물에 적절한 손실 방지 조치를 취하면 보험 손실의 70%를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추정한다고 발표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손실 방지 조치란 포장 품질과 아울러 운송 중의 화물의 취급, 보관, 고박 등의 안정성확보도 포함되어야 할 것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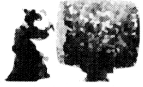
위와 같은 통계 분석으로 보더라도 포장 시에는 운송, 보관, 하역 과정을 고려하여 설계하여야 하며 반대로 각 유통 과정의 모든 작업도 포장의 기능을 충분히 이해하고 작업을 해야 합니다. 따라서 이번에 제정하는 “수송포장가이드라인”은 포장뿐만 아니라 운송, 하역, 보관 등의 물류 과정에 종사하는 모든 종사자들에게 제시하여 부적절한 포장 및 운송, 하역, 보관으로 발생하는 손실을 최소화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 수송포장가이드라인은 수송포장 화물의 손실 방지 및 예방 지침서로서 포장업계 및 수송업계의 종사자들이 필요로 하는 사항들을 반영하여 포장 화물의 손실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물류 과정에서의 각종 스트레스를 분석하여

포장 표준, 설계, 작업에 적용하고 포장의 기능을 운송업계가 이해하도록 그 내용을 기술하여 “안전 수송에 적합한 포장”과 함께 “포장 기능을 고려한 안전 수송”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이 가이드라인은 정기적으로 업그레이드 하여 급변하는 물류 환경에 적절히 적용하여 안전 수송의 목적을 이룩하는데 크게 이바지하도록 할 예정입니다.

또한 최근에 크게 이슈가 되고 있는 친환경 포장을 고려한 포장기법, 자재 등을 활용하도록 하였으며 또한 포장업계와 물류업계가 협업 체제를 갖추어 정보를 공유할 수 있게 됨으로써 물류비 절감을 위한 포장이 가능해져서 수출기업의 국제 경쟁력 제고에도 크게 이바지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합니다.

그리고 화물 사고가 발생할 경우 실무적으로 포장이 완전한지 불완전한지를 결정하는 절대적인 기준이 없고 심사인이 사실 관계를 정밀 조사하여 일반적인 유통관념에 따라서 인정하는 것이 보통이며 해외에서 사고가 발생한 경우의 심사인은 현지인이므로 당연히 현지측에 유리한 판정을 하기 쉽습니다. 이것에 대항하기 위해서는 포장설계의 타당성을 분명히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 두고, 유통 과정의 환경을 철저히 조사해 두어야 하는데 이 가이드라인이 그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지금까지 포장화물 손실에 대비한 보험제도가 없어서 중소 포장업체들의 안정적 경영에 큰 장애 요인으로 작용하였는데 이 가이드라인이 보험제도의 도입을 가능케 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하며 현재 보험업계와도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번에 완성한 가이드라인은 앞으로 KS 표준 제정 신청 및 국제표준화를 위하여 NP제안을 준비 중에 있으며 한·중·일 3국은 이를 기초로 하여 수송포장 인증 제도의 도입도 함께 논의해 나가기로 하였습니다.

앞으로 이 가이드라인이 포장업계와 물류업

계의 정보 공유의 계기가 되기를 바라며 이를 통하여 포장 품질 개선 및 안전 수송의 목표를 달성하여 포장화물의 손실 최소화와 나아가 물류비의 절감 효과가 극대화되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합니다.

마지막으로 오랜 기간 동안 가이드라인 제정에 함께 해준 전문위원(14명)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한·중·일 공통 표준화 협력 과제로 선정해준 한국표준협회 그리고 중국의 중국포장연합회 및 일본의 전일본공포공업조합연합회의 적극적인 협조에도 감사드립니다. ☐

## 사단법인 한국포장협회 회원가입 안내

물의 흐름이 자연스러운 것은 물길이 나아있기 때문입니다.

포장산업이 강건하려면 미래를 내다보는 안목이 필요합니다.

포장업계의 발전이 기업을 성장시킵니다.

더 나은 앞날을 위해 본 협회에 가입하여 친목도모는 물론 애로사항을 협의하여

새로운 기술과 정보를 제공받아야 합니다.

포장업계에서 성장하기 원하시면 (사)한국포장협회로 오십시오.

**(사)한국포장협회**

TEL. (02)2026-8655~9

E-mail : kopac@chollian.net